# 신흥국 전략

## 베트남 중장기 정책 방향성:민간기업 및 인프라

베트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 베트남 중장기 정책 방향성은 민간기업 활성화 및 인프라 투자 확대

1월 20~23일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가 개최됐다. 정부는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5년 선진국 진입 로드맵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26~2030년 연평균 10%의 고성장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는 직전 5개년 목표(6.5~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국가 운영의 무게중심이 성장 가속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한다. 전당대회 종료 직후 열린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재임에 성공한 권력 서열 1위인 또럼(To Lam) 공산당 총서기는 현재 베트남이 제도·자원·인프라 등 '3대 병목'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 경제의 위상을 기존 '중요한 동력'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격상했다. 이는 민간 주도의 성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현 단계에서 로컬 기업만으로 10% 내외의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간 베트남 경제 성장과 수출을 견인해온 FDI 유치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투자 리드타임 단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성장 모델이 함께 제시된 만큼, 단순히 기업 수나 프로젝트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첨단 제조·AI·반도체 등 고부가 산업 중심으로 유치 전략이 재편될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베트남이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제조·기술 허브로 도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빈, 마산, 호아팟 등 로컬 민간기업의 역할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민간부문 역할 강화 목표는 외자 의존을 고착화하는 데 있지 않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 확대를 계기로 로컬 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기술 협력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생산·투자 과정에 로컬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면서, 부가가치가 국내에 축적되는 구조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즉, 민간 중심 전략은 FDI를 발판으로 로컬 기업의 글로벌 내 경쟁력과 위상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이는 로컬 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 및 투자 모멘텀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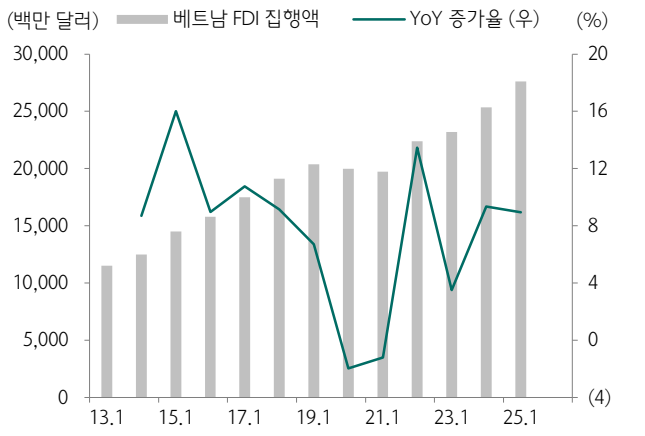
또한, 정부는 공급망 안정의 전제조건인 전력·항만·도로·철도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공공투자를 지속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인허가와 집행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가 가시화될 경우 FDI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물류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종합하면, 향후 베트남은 단기적으로 고품질 FDI 확대와 제도·인프라 병목 해소를 통해 성장 속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제조·기술 허브로의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증시 관점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중장기 성장 스토리의 가시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업종별로는 공공투자 확대와 연동되는 인프라 관련주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FDI 유치 규모와 산업별 투자 흐름에 따라 수혜 업종 및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트 1. 베트남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2. 베트남 FDI 집행액 및 증가율**




자료: CEIC, 하나증권